

음악 교육 철학적 접근을 통한 제주 음악 교육 방향 고찰

고혜영, 황경수*, 양정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A Study on Jeju Music Education Direction through Philosophies of Music Education

Hye-young Ko, Kyung-Soo Hwang*, Jeong-Cheol Yang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Ph. D. Program,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들을 정리하고 선진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함의 점을 가지고 제주 음악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으로는 실러, 슈타이너, 듀이, 부르디외, 리머, 엘리엇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 베네수엘라, 핀란드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 교훈 점을 찾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한 분석의 틀로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사회의 음악 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해 4가지의 맥락으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음악 교육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는 시민들의 관용의식 확장 유도, 평가보다는 격려와 지지의 표현 확산,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 초중고 공교육 부문의 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에서는 사교육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 모든 과목 학습 과정에서 음악사례 응용, 1인1악기 연주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에 음악과목 전담 강사 채용을 제언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의 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에서는 예술부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국가 부담, 마을단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연주단체 신설과 운영을,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내에 문화예술 분야 중 음악교육 전문직 채용,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내에 문화예술분야 음악부문 정책 자문의원 채용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suggest a policy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Jeju Music Education with implications from the process of arranging philosophical theories related to music education and analyzing advanced cases. The philosophical theories of music education were examined by Schiller, Steiner, Dewey, Bourdieu, Reimer, and Elliotts. In addition, this study checked the lessons in music education programs in Germany, Venezuela, and Finland, and we make policy suggestions in four contexts to set the direction of music education in the Jeju community based on interviews with 10 experts. Suggestions for improving social awareness of music education, suggestions for music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public school sectors, in the proposals for music education in the lifelong education sector, and the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policy all included music education professionals recruited from among the culture and art sectors with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ultural Policy Division. Music advisors were also recruited from the music and sector music councils with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Keywords : Jeju Music Education, Community Music Education, Philosophical Theories of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Program, Social Awareness of Music Education

본 논문은 "2019년 제주대학교 교원 성과지원사업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산학기술학회, "음악교육 철학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음악교육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2019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에서 발췌, 추가하여 완성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 Hwang(Jeju National Univ.)

email: kshwang@jejunu.ac.kr

Received October 30,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November 27, 2019

Published December 30, 2018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음악 교육이 시험과목일 때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고등학교 이후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 없을 경우 음악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방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음악 교육도 체험과 경험, 다른 과목들과의 연계, 인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총체성적 측면의 음악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음악에 대한 접근도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남녀노소 관계없이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의 섬'으로 지역축제와 공연들이 많이 개최되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그에 반해 제주 도민에 대한 음악 교육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수와 외국인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주도민들과의 융합의 문제를 문화예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최근 제주교육청에서 제주 초·중학생의 집단 따돌림 실태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단 따돌림이 2014년 15.4%에서 2019년 2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 및 교육현장 등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학생의 경우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해결방법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등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혼인 신고한 다문화 부부는 443쌍으로 전년도 392쌍 대비 13.0% 증가했으며,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353명으로 전년도 320명 대비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인성교육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러[1]는 예술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총체적 인간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듀이[3]의 경험중심 예술교육이 공동체 생활과 사회 합리화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리머[5]의 상호협력주의적 음악교육과 엘리엇[6]의 다양성 이해를 유도하는 음악교육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제주 음악 교육의 방향을 고찰하여 음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육의 철학적 접근을 통해 음악

교육의 긍정성에 대한 정리를 하여 교훈 점을 찾아보고 이러한 맥락으로 선진 음악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분석과정에서 얻어진 함의를 가지고 지역사회 음악 교육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먼저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들을 정리하고, 선진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함의 점과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 음악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

인간의 삶과 음악 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련한 철학적 이론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러한 이론들은 음악과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2.1 실러의 미적 교육론을 통한 총체적 인간형성

실러(Friedrich Schiller)는 인간이 가진 폭력성과 야만성을 예술교육이 순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적 체험은 인간에게 행동하는 능력을 부여하여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연결고리가 된다는 주장을 한다.[1] 즉 미적 교육은 총체적 인간형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표명하였다.

2.2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측면에서의 음악적 경험

슈타이너(Rudolf Steiner)는 어린이들이 음악적 소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충분한 음악적 경험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기질에 맞추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듀이의 미적 경험을 통한 예술교육

듀이(John Dewey)는 '예술작품'을 진정한 예술로 보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예술을 강조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예술에 주목한다. 또한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예술이 인간 공동체 생활과 사회 합리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3]

2.4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의 승계를 통한 음악 교육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화자본이 계급형성을 유도한다는 주장으로 비판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이 지속된 노출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보고 아이들이 가정과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연스럽게 교육되어 습득되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모의 음악적 소양, 취향, 성향 등도 어린 시절부터의 지속적인 노출과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다음세대에 세습, 상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

2.5 리머의 경험중심과 상호협력주의적 음악 교육

리머(Bennett Reimer)는 듀이의 이론과 비슷한 맥락에서 경험을 강조하고, 음악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소양을 기르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음악 교육 관련자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음악철학과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키워야한다는 상호협력주의(synergism)[5]적 맥락을 강조했다.[5]

2.6 엘리엇(David Elliotts)의 다양성 이해를 유도하는 음악 교육

각 지역 혹은 시대별 음악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원주의적, 다문화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음악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6]

3. 음악 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3.1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의 예술프로젝트

3.1.1 음악과 무용을 통한 다양성 이해 소양 증진 교육

베를린 필하모니의 ‘베를린 필과의 춤을 Rhythm Is It’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 함께, 맞추어 무용을 완성함으로써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는 품성을 함양하게 하고, 새로운 감수성을 읽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다.[7]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교육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술의 힘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3.1.2 미래의 문화향유자를 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

작곡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대 음악 작곡가와 대화, 토론을 통해 작곡 모티브에 대해 배우고, 직접 작곡을 하며, 즉흥 연주 기법을 활용한 자신의 예술

을 표현하는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음악이 어렵다는 편견을 해소하고 잠재 문화향유자로서 음악에 편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2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운동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학교로 인도하고, 인성 교육을 시키며, 예술적 감성과 공동체 의식은 물론 민족적 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 복지 차원에서 국가나 기업이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에게 예산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 지역은 물론 국가차원의 예술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7]

3.3 핀란드 헬싱키의 시립도서관을 통한 음악 교육

도서관이 조용한 책읽기 공간에서, 음악, 미술, 미디어 매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과 친해지고, 책과의 접근기회를 늘리며,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교훈이 있다.[8]

3.4 핀란드 국립 오페라극장 스쿨오페라 프로그램

오페라극장에서 음악과 역사, 국어, 미술, 경영부문과 연결시켜 오페라를 즐기면서도 음악 교육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음악 교육을 추진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8]

3.5 선진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 예술프로젝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운동, 핀란드 헬싱키의 시립도서관을 통한 음악 교육, 핀란드 국립 오페라극장 스쿨오페라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 보면서 제주형 프로그램을 도출하여보았다.

베를린 필하모니의 ‘베를린 필과의 춤을 Rhythm Is It’ 프로젝트는 음악과 무용을 통한 다양성 이해와 소양을 증진시키는 교육이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립합창단, 서귀포합창단, 제주교향악단, 서귀포관악단, 무용단 등 총 5개의 도립 예술단이 있다. 이들 단체가 연합하여 제주도민과 이주민, 다문화화를 위한 음악 교육을 기획하여 예술교육을 실시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문화 시민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도립예술단의 제주의 미래 문화향유자들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제주의 높아진 문화 의식과 함께 음악 교육을 위한 그들의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 운동을 통해서 제주의 음악 교육의 기회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와 민간기업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인성교육, 예술적 감성,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핀란드 헬싱키 시립도서관 사례에서는 제주도의 박물관과 도서관 주관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물관과 도서관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공연장 주관으로 음악과 타 교과 융합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초중고 음악 교과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단기 진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선진사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관련 이론 연구에서 각 학자들의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맥락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 정리하면 실러(Friedrich Schiller)는 미적 교육을 순화능력과 사회성 증대를 강조했으며 슈타이너(Rudolf Steiner)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음악적 소양을 경험을 통해 교육하여 음악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듀이(John Dewey)는 미적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 적응과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부모에 의한 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지속적 노출이 자연스럽게 교육적 효과를 갖게 된다고 강조한다. 리머(Bennett Reimer)는 바람직한 음악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예술철학들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협력주의를 통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소양을 기르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엘리엇(David Elliotts)은 다원주의적, 다문화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그 음악 프로그램들로부터 지향하는 음악 교육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들 중에서 베를린 필하모니의 예술프로젝트에서는 차이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내는 품성 함양을 지향하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니의 예술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현대 음악 작곡가와와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Table 1. Finding implications through the best practice

Music Education Program		Jeju type Program Derivation
Art project of Berlin Philharmonic in Germany	Education for promoting understanding of diversity through music and dance	Jeju Art Troupe (Choror, Symphony Orchestra, Wind Orchestra, Dance Company) organizes education program for Jeju residents,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Jeju residents and provides art education through music
	Long-term education program for future cultural enjoyers	Annual education program organized by planning youth programs for Jeju's future cultural residents
Venezuela's El Sistema Movement		Educational program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led programs for underprivileged youth in areas where music education is not available
Music education through municipal libraries in Helsinki, Finland		Museums and libraries conduct arts education programs, and local governments actively support museums and libraries carrying out such programs
Finland National Opera Theater School Opera Program		Conducting music programs in music and other subjects under the supervision of public performance halls, and actively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music subjects

예술을 표현하는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에 두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운동에서는 인성교육과 감성, 공동체 의식, 민족적 감성을 키우는 목적이 있었다.

핀란드 헬싱키의 시립도서관 음악프로그램에서는 책과의 친밀함 유도와 더불어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페라 극장 스쿨 오페라 프로그램에서는 오페라를 통해 다른 과목들과 연결하여 총체적 학습을 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음악 교육의 진단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지향해야 할 음악교육철학의 내용을 인터뷰할 것이다. 행적학적 접근의 논문에는 정책제언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제주도의 음악 교육의 발전을 위한 부문별 제언을 인터뷰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터뷰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5. 음악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인터뷰

이론 연구의 각 학자들의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맥락을 중심으로 제시한 분석의 틀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 교육 전문가 10인에게 10월15일부터 17일까 3일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음악 교육의 효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음악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교육청이나 도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10인의 인터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10인의 전문가 인터뷰 표본현황이다.

5.1 김TG 인터뷰 내용(40대 중반, 공공 공연장 기획)

음악은 인간의 정서순화는 물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Table 2. Analysis item presentation table

Finding the subject of an interview on the significance of music education through scholars' argumen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creased Purity and Sociality 2) Developing musicality by educating students through their musical literacy 3) An important role in adapting to community life and forming sociality based on aesthetic experience 4) Educated effect of parents' children's continuous exposure to music 5) Develop with the skills to express one's feelings through synergism 6) Cultivate pluralistic and multicultural thinking 	Interview focused on the diagnosis of these areas in the Jeju community
Finding the meaningful interview items of music education through various program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e aim to cultivate character that leads to recognition of difference. 2) The discussions with contemporary music composers have given them confidence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their art. 3) The purpose was to develop character education, emotion, common sense, and national emotion. 4) In addition to inducing intimacy with books, the goal was to increase the sensitivity of art. 5) Through opera, they connect with other subjects to learn holistically. 	
Identify interview topics for policy suggestion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uggestions for Improving Social Awareness in Music Education 2) Suggestions for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3) Suggestions for Music Education in the Lifelong Education Sector 	Opinion on policy suggestions

Table 3. Sample Interviewers for Policy Suggestions

Name	Age	Work Place	Situation	Date
Kim TG	The mid 40s	Public theater	Planning	Oct. 15th
Kim SH	The late 50s	High school	Teacher	Oct. 15th
Kim MS	The early 40s	Art Plan Company	Representation	Oct. 15th
Lee JS	The early 40s	Orchestra	Conductor	Oct. 16th
Kang KM	The early 40s	Arts association	Planning	Oct. 16th
Kong MK	The late 30s	High school	Teacher	Oct. 17th
Lee JH	The late 30s	Pianist	Freelancer	Oct. 15th
Park MJ	The mid 40s	High school	Teacher, Vocalist	Oct. 16th
Cho ES	The early 30s	Elementary School	Conductor	Oct. 17th
Ko ES	The mid 40s	High school	Teacher	Oct. 17th

하는 특징이 있어 현대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학교 내와 사회 및 다양한 기관에서 기악과 합창 등 음악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 간 관계를 더욱 좋게 한다. 특히 최근 제주의 경우 기악 앙상블, 합창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려면 음악단체나 학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운영하는 교육청 또는 중앙정부 교육부와 지자체가 예산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함께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재단에서는 학교와 행정 및 전문가그룹을 두어 자문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5.2 김SH 인터뷰 내용(50대 후반, 고등학교 음악교사)

음악은 정서적 관계의 풍성한 교류와 즐거운 소통으로 행복한 삶을 제공한다. 음악 교육은 개개인의 음악성,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역량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인문, 사회, 과학 등의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음악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험과 체험활동을 겸한 교육으로 삶의 질과 음악적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위한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5.3 김MS 인터뷰 내용(40대 초반, 예술기획 대표)

음악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집중력을 키워주며 다른 사람의 소리와 융합하려는 노력에서 사회성을 길러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음악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음악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 지원과 예술 동아리 확대 및 다양화, 음악 교육 및 예술 활동 기회의 확대, 행정기관의 음악교육 지원단 편성, 악기 교육 지원센터 운영, 학교 간 교류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5.4 이JS 인터뷰 내용(40대 초반, 오케스트라 지휘자)

음악은 인간의 성격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합창단,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협업, 소통, 배려를 배우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10년 동안 지속해 온 1인1악기를 통한 감수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드웨어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음악을 전공한 초등교원이 없어서 오케스트라, 합창단

을 운영, 학부모의 민원, 각 파트 강사 선생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 교사와 강사 선생님들의 교육적 소통,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악과목 전담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악기 관리, 강사 관리 및 담당 교사와 소통 장기적인 교육을 위한 계획을 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5.5 강KM 인터뷰 내용(40대 초반, 예술협회 기획담당)

한 곡을 연주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얻어내는 결과물은 인간이 살아가며 꼭 배워야 할 인내와 성취감으로 자존감 형성에도 효과적이다. 악기 연주법을 배우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만의 또 다른 언어가 되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사춘기를 맞이하거나 교우와의 소통 문제 등의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노인이 되어서도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과정을 통해 치매 치료, 기억력 향상, 경직된 환경 속에서 융통성 있는 관계, 공감과 치유 능력에 도움을 준다. 도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악기의 접근이 가능해진 반면 간접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기획 연주회들이 없는 것이 아쉽다. 예를들어 초등학교를 위한 교과서 전래동화 음악극, 중학생을 위한 서바이벌 랩 페스티벌, 고등학생을 위한 인문음악 토크 콘서트 등 연간 기획된 프로그램,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중심있는 대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예술지원센터와 같은 허브역할을 하는 단체에 교육자들과의 피드백을 위한 예술가들, 소통을 위한 스태프들의 컨텐츠 개발을 위한 공간, 센터가 필요하다.

5.6 공MK 인터뷰 내용(30대 후반, 고등학교 음악교사)

음악은 청소년기의 정서안정, 탈선예방, 진로 선택 기회 제공 및 협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서는 클래식, 국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대중문화(케이팝, 뮤지컬, 재즈 등) 관련 수업을 진행하여 폭넓은 경험을 하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언젠가 학생들이 모여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학교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학교 역시 음악실을 제외하고 공간이 없어 음악 관련 동아리나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거나 주말에 나와 연습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5.7 이JH 인터뷰 내용(30대 후반, 피아노 방과 후 교사)

음악은 정서 발달과 교양 발달에 효과가 있다. 체계적인 음악 교육으로 예술지능영역 자극을 통하여 본연의 능력 및 창의성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악 감상에서 시작하여 가창, 연주를 통한 감정표현과 카타르시스로 정신적, 감정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집중이수제로 인해 음악, 미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락하여 음악적 지식 습득시간과 활동영역의 제한이 많아 음악수업 시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별 음악 교육 수준의 극심한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관할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통한 악기보급, 예술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그에 따른 교원 연수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5.8 박MJ 인터뷰 내용(40대 중반, 성악가, 예술단체 대표)

음악을 듣고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공감과 소통 능력이 상승되며 음악 교육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인성 정서 교육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 초등저학년의 음악 기초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악기교육, 합창 교육 등의 기능교육을 할 수 있는 음악대학 졸업자가 아닌 음악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는 교육자를 재교육하여 현장에 보내야 한다.

5.9 조ES 인터뷰 내용(30대 초반, 초등학교 합창단 지휘자)

음악 교육을 통하여 표현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다. 합창교육의 경우, 각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감정으로 소리를 내는가에 따라 그룹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표현의 중심점이 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타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 자신의 소리를 조절할 수도 있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음악 교육은 1년 단위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여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분야의 음악가들의 좋은 연주를 통해 다양한 음악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10 고ES 인터뷰 내용(40대 중반, 고등학교 음악 교사)

음악을 통한 소리에 대한 반응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말에 더 빨리 반응하여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통해 기억력과 신체와의 조화, 수학적, 물리적, 공감각적인 관계까지 연결된다. 함께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교류, 앙상블을 통해 타인의 소리와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공감능력과 배려를 배우게 된다. 결과중심, 성과중심의 예산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과정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음악교육의 전문가를 각 기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표4에서는 전문가 10인이 제시한 음악 교육의 효과와 정책제언의 의견을 정리하고 도출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리하였다. 도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내에 문화예술분야 중 음악교육 전문직 채용, 모든 과목 학습 과정에서 음악사례 응용 유도, 1인 1악기 연주하는 프로그램 운영, 예술부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 부담 국가가 부담, 음악 교육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제언, 초등학교에 음악과목 전담강사 채용,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연주단체 신설과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내에 문화예술 분야 음악부문 정책 자문의원 채용 등이 있다.

10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살펴보면 학자들이 제시한 음악교육의 철학적 맥락처럼 음악을 통해 사회성이 길러지며, 정서적 안정, 집중력을 비롯하여 협업, 소통, 배려, 인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과 자존감 형성에도 효과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 불안한 감정의 해소, 표현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음악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의 장기적인 관심과 계획,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며 전문가 그룹을 두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기획 연주회, 연습 공간,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예술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Table 4. The Effect of Music Education and Policy Suggestions through Interview

Name	The Effect of Music Education	Policy Suggestions Opinion	Derivation Policy
Kim TG	Emotional Purification, Forming good relationships	-School board, local government mid-long term plan -Advice from schools, administrative and professional groups	Recruitment of music education profess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im SH	Happy life offer	-Need for education to foster convergent thinking -Need for bold investment by local governments for education that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musical competence	-Induce music case application in all subjects -Operate program for playing one instrument Burden of education expenses for arts lifelong education
Kim MS	Emotional stability	-Changing Perceptions of Music Education -Continued participation and support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Supporting professional manpower, organizing music education support groups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Suggestions for Improving Social Awareness in Music Education -Recruitment of policy advisors to the music sector in the Congres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ee JS	Ability to solve in various situations	Recruitment of music lecturer	Recruitment of music lecturer in elementary school
Kang KM	Forming self-esteem, Relieving anxiety	-Planning concert for youth -Center Need for Content Development	Performance and performance of performance groups through village lifelong education program
Kong MK	Improve collaboration	Budget support solves lack of space	Recruitment of policy advisors to the music sector in the Congres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ee JH	Emotional Development, Liberal Development	-Securing music class hours -Need for systematic guidance through teacher training	Recruitment of music education profess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ark MJ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Educator Needs Retraining for Music Education	Recruitment of music education profess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ho ES	The pleasure of expressing music	-Long-term planning needs of local government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various music	Recruitment of policy advisors to the music sector in the Congres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 ES	Empathy	-Institutional Placement of Music Education Professionals	Recruitment of music education profess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 결론

본 연구는 음악 교육 관련 철학적 이론들을 정리하고, 선진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합의 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10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제주 지역사회 음악 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육이나 미학, 철학 관련 학자들로서 실러, 슈타이너, 듀이, 부르디외, 리머, 엘리엇 등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그 철학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러의 미적 교육론을 통한 총체적 인간형성,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측면에서 음악적 경험, 듀이의 미적 경험을 통한 예술교육,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의 승계를 통한 음악 교육, 리머의 경험중심과 상호협력주의적 음악 교육, 엘리엇의 다양성 이해를 유도하는 음악 교육의 강조이다.

또한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의 예술프로젝트를 통하여 음악과 무용을 통한 다양성 이해 소양 증진교육, 미래의 문화향유자를 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

며,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운동, 핀란드 헬싱키의 시립도서관을 통한 음악 교육, 핀란드 국립 오페라극장 스쿨오페라 프로그램 또한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제주 지역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제주도 내의 예술단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과 이주민, 다문화화를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이를 위한 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 제주 지역의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민간기업 주도의 프로그램 계획, 제주도 내의 박물관, 미술관, 공공공연장 주도의 융·복합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이후 초·중·고 음악 교과 프로그램에 도입 추진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 본 음악 교육 관련 철학 이론과 선진 사례 분석, 그리고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4가지의 맥락으로 제주 지역사회의 음악 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음악 교육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이다. 첫째, 시민들의 관용의지를 확장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음악과 음악 교육에 대한 시민들

의 적극적 지지와 음악활동에 대해 관용을 유도해내고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관계적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개발과 음악 교육의 긍정적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평가보다는 격려와 지지의 표현 확산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보다는 문화 창달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음악부문뿐만 아니라 예술교육부문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를 표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음악 교육이 일반서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지역사회의 인식이 전환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직업인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과정의 음악 영역은 있지만, 국악, 뮤지컬 등의 장르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배려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우선 고려의 대상으로 하되 일반서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음악 교육 부분도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같이하는 발전, 즉 공진(Co-evolution)[9]하기 위해서는 일반서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음악 교육 부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맥락으로 초·중·고 공교육 부문의 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이다. 첫째, 사교육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음악 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반사회가 담당하는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 교육을 학교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고, 그 부족분만큼은 사교육에 의지하게 된다. 결국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부담이 학교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해결방안은 사회가 이 부분을 담당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서서 마을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이 담당하던 부분과 사교육에 의지하던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과목 학습 과정에서 음악사례 응용을 유도한다. “음악을 통한 삶에 대한 이해”라는 교육영역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음악 교육이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인문학적 접근이나 음악 미학적 접근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할 상황이 되었다. 초·중등 학과 수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과목에 음악을 활용한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수학과 물리 부문에 피타고라스의 음의 분리, 세계사 부문에 세계사와 음악의 발전, 국어시간에 음악미학, 체육

시간에 발레와 음악 등의 형식으로 음악이 대부분의 교과과정에서 응용되도록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1인 1악기 연주하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학교교육부문에 1인 1악기 연주실력 배양프로그램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1인 1악기를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임대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 바이올린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악기를 임시소유하게 하는 데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도하고, 음악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악기상은 임대했던 악기를 회수한 후 수리하여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속화하면 악기상도 이익을 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에 음악과목 전담 강사를 채용한다. 인터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음악 교육에 있어서 중등교원은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지만 초등교원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관계로 교육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학교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선생님 혹은 파트 강사 선생님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교원과 강사선생님들의 교육적 소통 및 관리, 학부모들의 민원, 담당 초등교원의 업무 부담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 전담 강사가 있듯이 음악도 전담 강사를 채용해서 악기 관리, 강사 관리 및 담당교사와의 소통, 장기적인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평생교육 부문의 맥락으로 음악 교육을 위한 제언이다. 첫째, 예술부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라는 말을 사용하여 문화자본이 계급을 규정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4] 부모로부터 얻어진 습관이나 취향 등이 계급적 특성을 부여하여 결국에는 후대의 계급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논리이다.[10]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교육정도, 직업정도, 문화의 선호정도, 경제정도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계급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자들은 국가가 평생교육부문에 대해 부담을 지고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연주단체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이다. 마을별 1단체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프로그램이다. 합창, 악기 중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교육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리단위 등에서 하고자 한다면 리사무소 등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그리고 1년 동안 학습한 내용을 연말에 축제를 만들어 공연을 할

수 하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 마을별 1 단계를 운영하면 도시와 농촌 관계없이, 나이와 세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제도적 맥락에서의 정책적 제언이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내에 문화예술 분야 중 음악 교육 전문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문화정책관련 전문직을 채용하여 행정부문에서 음악 교육사업의 연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교통부문 등에서는 이미 전문직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화정책부문에서도 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읍면동 등에 문화정책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특히 음악 교육부문은 기획파트로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육과 향유의 영역도 중요하다. 전문가의 투입이 기획은 물론 현장에도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내에 문화예술분야 음악부문 정책 자문위원의 채용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문화예술분야 중 음악 부문, 혹은 음악 교육 부문의 정책자문위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정책자문위원제도가 있어 음악 부문의 전공자를 추가하여 선발하고 배치할 수가 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가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음악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음악 교육의 철학적 이론과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번에 제시하였던 제주형 프로그램과 각 정책 제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연구하여 제언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1] Schiller. F., Briefe Uber die A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hevon Briefen, On the aesthetic education of man, Trans. Inhee Ahn, Seoul: Human Art Humanist Publishing Group, 2012.

[2] Yu-ra Kim, "The Theory of Rodolf Steiner's Music Education: Implications for the Contemporary Education", *Education philosophy*, Vol.47, pp.1-19, 2012.

[3] Ki-soo Kim, "John Dewey Music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Aesthetic Experience", *The Journal of Total arts and Music*, Vol.4, No.1, pp.1-21, 2010.

[4] Hyun-cheol Oh, Capitals that Incarnate Differences-Bourdieu' "Distinguishing" Book Review, Political criticism, Korean Political Research Institute, 1998.

[5] Deok-won Kwon, "Understanding and applying Bennett Reimer's experience-based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Vol.3, No.2, pp.51-76, 2018.
DOI: <https://dx.doi.org/10.36223/inafme.2018.3.2.003>

[6] Deok-won Kwon, Munju Seok, Heeju Ham, Eunsik Choi,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p.382, Kyoyookbook, 2017.

[7] Mi-se Choi, "Public Value of Culture and Arts and Cultural Democracy", *Culture+Seoul: Going Together with Culture and Arts and Social Contribution*, 2011.

[8] Sam-geun Kwak, Modern life and culture and arts education, Asan Foundation Research Series Vol.407, Jipmoon, 2016

[9] Kee-Jung Barng, "A study on the Co-evolutionary Appeared in the Music Video and Media Developm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4, pp.439-448, 2016.
DOI: <https://dx.doi.org/10.14257/AJMAHS.2016.04.38>

[10] Saeng-geun Oh, "The Price of Philosophical Sociology-Pierre Bourdieu", *Korean Journal*, Vol.45, pp.131-132, 1993.

[11] Sun-i Lee, "The meaning of Experience in Dewey-Focusing on the Art as Experience", *Emotional Research*, Vol.15, pp.193-215, 2017.

고혜영(Hye-young Ko)

[정회원]



- 201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피아노연주과정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행정 박사과정)

<관심분야>

지역개발, 문화행정, 문화도시

황 경 수(Kyung-soo Hwang)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 박사)
- 2004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16년 11월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협상론

양 정 철(Jeong-Cheol Yang)

[정회원]



- 2009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일반행정 석사)
- 2015년 8월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행정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세계섬학회 연구위원
- 2017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관심분야>

요트&크루즈정책, 지역개발, 해양관광, 문화행정